

국제공증인협회(UINL) 가입 7년을 돌아보며

박 광 빈

대한공증인협회 국제이사
법무법인(유한) 을촌 변호사

1. 들어가며

2010. 10. 3.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에서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식적으로 국제공증인협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참하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대한공증인협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지난 7년간 가입심사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국제공증인협회(UINL) 가입 추진 경위

가. 회원가입 추진 배경

- 우리 사회 전부분이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 할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위상이 강화 될 뿐만 아니라 공증업무의 내실화, 업무 확대, 국제적 공증제도의 상호인정 등에서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고,
- 또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공증제도의 연원이 바로 라틴계 공증제도라는



△ 2010. 10. 3.(수)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UINL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개최식 당시, 송정호 협회장(왼쪽)이 참석하여 한국의 UINL 신입 회원국 가입승인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국기 게양식을 마친 후, UINL의 Eduardo GALLINO 회장(아르헨티나, 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점에서 우리 공증제도의 발전 및 연구를 위하여서도 UINL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와 인접한 중국, 일본이 이미 가입하고 있어 이들 나라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한층 더 도모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적극 추진.

나. 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회의 주요활동 내역

- 2000. 4. 1. :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주최한 특별회의(UINL 측도 참석)에 이재성 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강연 실시.
- 2000. 10. 4. ~ 6. : 국제공증인협회 산하 국제협력위원회가 방한하여 한국 공증제도에 관한 설명 들음.
- 2003. 1. 15. ~ 18. :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UINL과 중국공증인협회 공동 주최 (상해공증인협회 주관, 중국 법무부 후원) 국제공증인 심포지엄 참가.
- 2003. 10. 8. ~ 11. : 캐나다 퀘벡시에서 개최된 UINL 2003년도 회의에 한국을 대표하여 대한공증인협회가 옵서버 참가.
- 2004. 10. 17. ~ 22. :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2004년도 제24차 UINL 국제공증인대회에 옵서버 참가.
- 2005. 5. 28. ~ 6. 3. : UINL 및 미국공증협회 주관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전자공증에 관한 국제포럼” 참석.
- 2005. 7. 11. : 2005년도 대한공증인협회 정기총회에서 UINL 회원 가입을 회원 만장일치로 승인함. 회원 가입에 필요한 실무사항은 집행부에 위임.

- 2005. 10. 18. : UINL측에 협회 회원 가입 신청 공문 및 한국 공증인법과 공증인법시행령 발송.
- 2005. 10. 31. : UINL측에서 2005년도 회의 참석 요청과 함께 한국의 회원 가입과 관련되어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청한 데 대하여 설명자료 발송.
- 2005. 11. 5. ~ 9. :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INL 상임이사회 및 유럽공증인협회 연금제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공증제도 설명과 더불어 회원 가입 실무자와 협의.
- 2007. 4. 19. ~ 21. : 일본공증인연합회를 방문하고 일본공증인연합회 운영 방향, 일본 내 공증제도 현황, 선서인증·전자공증 등 선진공증 제도 운영 현황, 공증주간 행사 등 공증홍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함과 더불어 Hongo Takeyoshi UINL 상임이사 등과 만나 한국의 UINL 회원가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
- 2007. 5. 22. : UINL Giancarlo Laurini 회장과 아시아지역 Sadayuki Funabashi 부회장에게 한국의 UINL 회원가입이 어느 정도 논의 되고 있는지와 함께 회원가입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CCNI(국제협력위원회) 담당자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서한을 발송.
- 2007. 8. 26. : CCNI의 Jeffrey Talpis 교수 겸 위원이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UINL에 제출.
- 2007. 8. 30. : UINL Giancarlo Laurini 회장으로부터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 받음.
- 2007. 9. 6. : UINL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 사무국에 한국의 회의 참가 통보.
- 2007. 9. 7. : 아시아지역 Sadayuki Funabashi 부회장 및 Hongo Takeyoshi UINL 상임이사에게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에서 한국의 회원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2007. 10. 3. ~ 6.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INL 제25차 국제공증인대회에 조희중 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 Sadayuki Funabashi 부회장 및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 등과 만나 한국의 회원 가입 방안을 논의 하였으나, 한국 공증인들의 임기제 및 협회의임의 단체성 문제로 가입 승인이 보류됨.

- 2007. 10. 29.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 및 한국 보고서를 작성한 Jeffrey Talpis 교수(공증인)에게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사항 등에 대한 서한을 발송.
- 2008. 10. 6. : 한국의 회원 가입과 관련된 두가지 전제조건 중 공증인의 임기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 서한 접수.
- 2009. 2. 2.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에게 한국의 개정 공증인법 등에 대한 내용 설명과 아울러 1/4분기 중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서한 발송.
- 2009. 9. 8. : 위원장 및 CCNI 위원들의 회원국 가입심사를 위한 한국 방문 일정 통보.
- 2009. 9. 11.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 등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답신 서한 발송.
- 2009. 10. 17. ~ 23.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 등 대표단 일행 한국 방문 및 한국 회원 가입 실사 진행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등 방문.
- 2009. 12. 22.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의 원활한 회원국 가입 진행을 위하여 한국 공증인법 중 일부 개정의 필요를 권고 요청하는 서한 접수.
- 2010. 4. 13.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에게 공증인법 개정 권고 사항 중 상당 부분은 공증인법의 불어 번역 과정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서한을 전달.
- 2010. 4. 15. : Jean-Paul DECORPS CCNI 위원장으로부터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 가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5월말까지 대한공증인협회 차원의 ‘공증인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 2010. 9. 17. : UINL에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윤리강령(가안) 영문 번역본을 송부.



△ 2009. 10. 19.(월) UINL 회원 가입 심사를 담당하는 국제협력 위원회(CCNl) Jean-Paul DECORPS 위원장(맨 앞줄 왼쪽) 등 대표단이 대한공증인협회를 방문하여 노승행 협회장(맨 앞줄 오른쪽) 등 협회 임원으로부터 한국 공증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변호사회관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 가입 심사 당시의 분위기

2009. 10. 17.(토)부터 10. 23.(금)까지 일주일 동안 가입심사를 받으면서 국제공증인협회의 분위기와 공증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꼈다. 유럽의 공증인들은 변호사보다 높은 수입이 보장됨과 아울러 국가 사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이 매우 높았다. 사전에 국내에

서 면담할 대상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 등 법조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당연히 요청하는 가입 심사위원들의 태도가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과의 만남이 계속 되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라틴계 국가들답게 대부분 영어보다는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통역도 불어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법률 계통과 관련된 불어 통역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통역인 섭외 및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관련하여 엄청나게 꼼꼼한 분들이었다. 방문한 기관에서 정말 온갖 것을 다 문의하고 확인하는 태도, 가입 심사 절차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도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열정 등은 본받을 만하였다.

3. 국제공증인협회에 대한 고찰

가. 국제공증인협회의 창립

국제공증인협회(Union Internationale Notariat Latin : UINL / 영어식 표기는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는 1948년 19개국(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에콰도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코,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우루과이)의 공증인협회 대표자들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1948. 10. 2. 현장의 형태로 승인된 원래의 정관은 1950. 10. 2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제공증인협회는 전세계 공증인들 상호 간에 공증업무를 촉진, 조정, 발전시키고, 각국의 공증인협회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개인과 법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공증인의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의 비정부기구(NGO)이다.

나. 국제공증인협의 설립 목적

- 라틴계 공증인 제도의 근본 원칙 및 공증인협회 회원들의 총회에서 승인된 공증인 윤리원칙의 촉진 및 적용
- 국제기구들에 대하여 공증인 직역을 대표
-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참여
- 각국의 공증인협회 등 국가 기구와의 협력
- 라틴계 공증인의 근본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증제도의 시행과 협력에 관한 법률의 연구
- 공증인에 관련된 법령의 연구 및 체계적인 수집
- 국제적 회의 촉진 및 개별 국가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문가적 회합의 지원
-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관계 정립
 - 공증인협회를 개선 중인 국가나 공증인협회가 아직 없는 국가들을 상대로 그 개선 및 구성을 지원하여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시키는 것
 - 공증인 제도에 접목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가진 국가의 공증 기구들과 관계 수립
 - 각국의 법의 발전에 공헌

다. 국제공증인협회의 활동 분야

국제공증인협회는 여러가지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공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간의 특별한 능력 있는 대화 중개자로서의 명성을 쌓아 왔다. 공증인제도의 근본 원칙에 입각한 정신에 기초하여 각국 공증인협회, 각국 의회, 국제적

및 초국가적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 국제기구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UINL에게 특별부문 자문적지위(special category consultative status)를 수여하였음.
- 유엔 헌장 제71조 및 유엔 결의안 1996/31호에 규정된 이 지위는 국가들, 유엔 사무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각 전문 기구들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 조언자, 자문인으로서 유엔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목표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받고 있음.
- WTO와 관련하여 국제공증인협회가 영향을 받는 범위내에 있는 각종 활동에 대하여 참여하고 있음.

○ 국제정부간기구(IGO :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유럽위원회,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 국제사법에 대한 헤이그회의 등

○ 초국가적, 지역적 기구

-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재판소, 미주기구, 국제해양협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연안경제위원회, 북미자유무역기구 등

○ 각종 국제비정부기구(NGO)

-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판사협회, 국제법협회, 국제변호사협회(IBA)

4. 아시아지역위원회의 활동

UNIL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총회를 정점으로 하여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이사회 그리고 1년에 네 번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UINL 산하에는 아메리카(CAA), 아프리카(CAAF), 유럽(CAE) 지역으로 구분한 대륙별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대한공증인협회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대륙별 위원회는 CAA, CAE, CAAF에 이어 가장 늦게 결성된 아시아지역위원회(CAAs)가 있다. 아시아 지역은 한국이 가입하기 전까지 회원이 적었던 관계로(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지역위원회를 구성되지 못하였었으나, 한국 가입을 계기로 하여, 2010. 7. 18.부터 7. 20.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공증인포럼(9개국 참석: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10년 마라케시 총회에서 그 설립이 결정되었다.

가. 아시아지역위원회 결성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010. 7. 18. ~ 20.,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동경
 - 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설립 논의(상세한 내용은 안원모 총무 이사
의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참관기, 공증과신뢰 2011년 통권 제4호 참조).
- 2010. 10. 1. UINL 2010년도 정기총회
 - 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를 설립하였으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
여 UINL 회장이 임시 위원장직 수행.
- 2010. 11. 25.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서한 내용
 - 한국의 UINL 회원국 가입을 축하하며, UINL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지난 10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를 설립하였는바, 대한공증인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조
만간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함.
- 2010. 12. 16.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서한 내용
 - 현재 공식인 CAAs 위원장을 UINL 차기 회장인 Mr. Jean-Paul DECORPS가 임시
로 맡았으나 내년 가을 총회 때까지는 신임 회장을 정식으로 선출해야 될 것 같
다는 점을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은 전달받았음.
 - 이에 대해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은 CAAs가 다른 대륙별 위원회와 달리 회원국
이 4개국에 불과하여 아시아의 다른 공증기구와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이 어렵
고, 일본의 경우 인력 및 재정 형편상으로도 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워 중국공증
인협회측에서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아시
아 각 회원국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UINL 회칙상 한 국가에서 위원장을 3년의 임기로 맡아야
하나 CAAs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1년마다 위원장을 맡아 1년에 최소 1~2회 이
상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측의 의견
을 요청(UINL 회장은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함.

○ 2011. 1. 21. 대한공증인협회의 서한 내용

- 우리 협회는 위원장 직을 순번제로 하되, 우리 협회가 신규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번이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에 제시함.

○ 2011. 3. 24.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서한 내용

- 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 직 수행과 관련,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에서는 중국공증인협회 측이 최근 서한에서 첫 번째 위원장 직 수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각 회원국의 비용절감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등의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2번째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측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협회가 최근 일본에 보낸 서한(신규 회원국인 만큼 위원장 직은 제일 마지막 순번이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사본과 함께 인도네시아 측에 보냈으며, 일본 측은 그다음 3번째 위원장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보내옴.

○ 2011. 6. 6.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서한 내용 및 2011. 6. 8. 중국공증인협회 WANG Fujia 위원장의 서한 내용

- 지난 5. 26. ~ 28.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UINL 상임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는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첫 정기 회의를 오는 9. 26. ~ 27.(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국에서는 참가자로 4~5명, 옵서버 참가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태국, 베트남은 2~3명(옵서버 국가별 참가자 1명은 UINL에서 항공료와 숙박료 대납)이 참가하도록 요청.
- CAAs 회의 아젠다: 회원국의 공증제도 현황 및 2010. 7.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이후 옵서버 국가들의 공증제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발표, 참가국 상호 간 관심사 또는 친선방문 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UINL에서 제시한 공증인교육, 윤리 및 징계, 정부(당국)와의 관계, 공증(직업)에 대한 접근, 공증 영역의 개발 등 5가지 최우선 논의 과제 중 한 두 가지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우리 협회는 5가지 주제 중 최우선 주제로 윤리문제 또는 공증영역 개발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을 중국공증인협회 측에 6. 14. 제시).

나. 아시아지역위원회의 매년 개최 현황



△ 2012. 11. 26.(월)부터 11. 27.(수)까지 대한공증인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2012년도 CAAAs 제2차 정기회의에서 주제발표 등 모든 회의를 마친 폐회식 후, UINL 회장단(앞줄 우측에서 4번째가 Jean-Paul DECORPS 회장) 및 한국(앞줄 우측에서 3번째가 김진환 협회장 겸 CAAAs 위원장),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참가국 대표단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듬해인 2011. 9. 25.부터 9. 26.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공증인협회(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로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면서(제2차 회의는 2012년 서울, 제3차 회의는 2013년 울란바토르, 제4차 회의는 2014년 북경, 제5차 회의는 2015년 동경, 제6차 회의는 2016년 가을에 베트남을 예상)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 아시아지역위원회의 애로 사항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위원회는 매년 2회씩 각 지역위원회 소속 국가들(20~30여 개)이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등)의 임기도 국제공증인협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하여서 조직의 운영을 견고히 하고 있다. 국제공증인협회에서도 다른 지역위원회와 같이 3년간 회장단을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사정상 현재 1년 단위로 차기 회의를 주관할 국가에서 회장단을 맡고 있다.

5. 대한공증인협회가 주관한 2012년 아시아지역위원회 정기회의

지역순환 개최 방침에 따르면 2017년이나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정기회의를 간략하게 정

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회의 주요 일정

▶ 11. 26. (월) / 롯데호텔 36층 샤흐데 스위트룸

- 17:00 ~ 17:50 참가국 대표자 사전미팅
- 18:00 ~ 18:30 등록
- 18:30 ~ 21:00 환영 리셉션

▶ 11. 27. (화) /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 09:00 ~ 09:40 CAAs 2012 정기회의 개회식
- 09:40 ~ 10:00 CAAs 회의 안건 상정 및 논의
- 10:00 ~ 10:45 각 회원국 2012/2013 공증 현황 프리젠테이션
*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발표
- 10:45 ~ 11:15 Coffee-tea break
- 11:15 ~ 12:00 각 회원국 2012/2013 공증 현황 프리젠테이션
* 한국, 몽골 발표 및 UINL 집행부 총평
- 12:00 ~ 13:30 점심식사 및 휴식
- 13:30 ~ 15:00 주제토론(제1주제)
* 각국 공증시스템의 효율화에 관하여
* 공증직역 확대 및 접근성 확장
- 15:00 ~ 15:30 Coffee-tea break
- 15:30 ~ 17:00 주제토론(제2주제)
*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증인의 역할에 관하여
- 17:00 ~ 17:30 차기 회의 일정 등 논의
* 개최지 및 주최국 선정, 회의 순환 방안, 옵서버 초대 범위, 통역 및 회의 진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17:40 ~ 17:50 총평 및 폐회
* 각 회원국 및 UINL 집행부별 총평 청취
* 대한공증인협회장 폐회 선언
- 17:50 ~ 18:30 자유 시간(해산 후 휴식 및 회의장 정리)
- 18:30 ~ 19:00 이동

- 19:00~20:20 저녁식사(한국의 집)
- 20:30~21:30 공연 관람(한국의 집)
- 21:30~ 호텔 이동 후 해산

▶ 11. 28. (수) / 자유 일정 또는 서울 시내 관광(비원, 경복궁, 청와대 등)

▶ 11. 29. (목) / 몽골공증인협회 견학 실시 / 법무법인 광장 및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나. 회의 성과

- 제1차 회의에 이어 Jean-Paul DECORPS 회장(프랑스)이 직접 CAAs 회의에 참석, 아시아 지역 회원국을 격려하고, 회의의 격을 높여 주었음.
- 한국에서의 최초 공증제도 관련 국제회의 개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힘입어 대한공증인협회 김진환 협회장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신임 CAAs 위원장에 위촉되는 등 한국 공증제도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임.

6. 나가며

국제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러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의 공증인협회 인사들과 공증인 제도를 준비하는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꾸준히 대한공증인협회를 방문하여 상호 간의 교류를 증대해 가고 있으며 민간 외교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협회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란다.

가. 인력의 보강

협회의 국제업무가 발전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외국어(특히 영어와 불어 및 스페인어)에 능통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들의 확보가 절실하다. 아울러 협회에 서근무하고 있는 상근 직원은 현재 단 2명에 불과하다. 빠르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다음 번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인력의 보강이 절실한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만보더라도 전국에 500명의 공증인 가운데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소

속된 공증인만 수십 명이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어느 회의에나 상시 참석하여 통역을 전담하여 주는 스태프가 별도로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협회도 부회장 한 분을 주책임자로 하여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나. 국제공증인협회의 이해

국제공증인협회는 설립 당시부터의 영향력, 부담하는 회비 등과 관련하여 현재 7개의 메이저 국가가 있다고 한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회장단이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지난 2013. 10. 페루에서 열린 제27차 국제공증인대회에서 전국에 공증인이 수십 명에 불과



△ 2015. 9. 13.부터 9. 16.까지 한국을 방문한 Daniel-Sédar Senghor(세네갈, 좌측에서 3번째) UINL 회장이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공증사무실 등을 예방한 데 이어, 대한공증인협회를 방문하여 유원규 협회장(좌측에서 2번째) 등 임원들과 공증제도 및 UINL 운영현황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눈 후, 협회장실에서 협회가 증정한 기념품(부채)을 들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세네갈의 생고르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투표를 통해 메이저 국가들이 지지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생고르 회장은 국제공증인협회의 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 물론 메이저 국가들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다. 금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가 예정된 제28차 국제공증인대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공증인협회의 각종 기구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세계 공증업계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다.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국회,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회, 외교부 등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과 국제공증인협회의 적지 않은 회비 부담 등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